



(주)페리카나

어린이날 사은 대잔치 실시



(주)페리카나(대표이사 양용진)는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10일까지 페리카나 치킨을 주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마빡이인형을 증정하는 사은 대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제너시스

‘행운 두배 페스티벌’ 진행



(주)제너시스(대표이사 윤홍근)의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BBQ 올리브 치킨’ 출시 2주년을 기념해 ‘BBQ 행운 두 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BBQ 올리브 치킨을

구매하면 응모권을 통해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프라이드 승용차, 스쿠터, LCD-TV, 에어컨, 노트북 등 1억원의 경품이 준비돼 있으며, 매주 목요일 111명을 추첨해 7주간 총 777명의 당첨자와 한 명의 특별상(승용차) 당첨자를 발표한다.

또한 오는 5월 20일부터는 BBQ 올리브 치킨을 구매하면 올리브유미니어처, 고급미용티슈, 어린이 개미관찰 집(택)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주)고려비엔피

검역원과 공동개발 저병원성 AI백신 출시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2년여 동안 공동 개발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달구방 AI백신(CE20주, H9N2)’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차 감염이나 스트레스 등에 따라 다

양한 폐사율(0~30%)을 나타낸다. 주된 증상으로는 산란율 저하, 호흡기 및 소화기증상 등이 있다.

‘달구방 AI백신’은 최첨단 시설과 엄격한 전문가에 의해 생산돼 고농도항원역가(Hi-titer)를 가진다. 동시

에 항원을 포함하는 오일성분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백신접종 후에도 항체가 높게 형성된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SPF 닭에서 1회 접종으로도 180일 이상 장기간 면역 지속이 유지됐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한 공격시험접종에서도 약 93% 이상의 방어율을 나타냈다.

새로운 순 우리말 브랜드 '달구방'은 닭을 지칭하는 정감있는 사투리인 '달구'와 질병을 예방하는 '방(防)'의 합성어로 제품과 함께 우리 문화도 수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주)고려비엔피는 조속한 시일안에 저병원성 시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뉴캐슬병(ND)의 혼합백신인 '달구방 AN'을 출시할 계획이다.

문터스코리아

'기후조절 시스템 소개를 위한 세미나' 개최



문터스코리아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하 1층에서 기후조절 시스템(Climat control) 설계와 적용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시아지부장 호칸씨의 '문터스 그룹과 문터스코리아의 한국시장의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주행 세일즈 엔지니어의 문터스코리아의 기후조절 시스템적용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문터스코리아는 세계 26개국에 지사를 두고, 습도제어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1970년대 초반부터 가금류, 축산업 및 그린 하우스 관련 고객을 지원하고, 외부 기후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도록 최적의 내부 기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후 조절 시스템을 도입,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왔다.

농협목우촌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수상



지난 4월 24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2007년 한국프랜차이즈 대상 수상식에서 (주)농협목우촌(대표이사 고윤홍)이 2007년 한국프랜차이즈 최우수 대상(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한국프랜차이즈대상'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동력 지원을 통해 한국경제에 힘을 불어넣고 창의정신을 확산시켜 국내 브랜드의 세계화와 해외진출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목우촌은 1996년 육가공사업 브랜드 '목우촌'을 시작으로 계육가공사업, 돼지고기 및 닭고기 유통, '도래오래' 및 '웰빙마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목우촌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축산농민이 생산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해 왔다.

농협목우촌 고윤홍 대표는 “이번 한국프랜차이즈 최우수대상 수상은 종합식품회사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물의 고급화와 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우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식 출범



목우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목사모’가 지난 4월 27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고윤홍

대표이사를 비롯, 강두승 전무 등 농협목우촌 관계자와 목사모(목우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고윤홍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목우촌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깨끗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국민께 제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우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목사모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농협 목우촌을 성장 발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창립멤버인 회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장차 회원도 늘고 활성화 되어 모든 이에게 부러움을 사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농협사료

양계사료 신제품 설명회 및 사양관리 교육 실시



농협사료(회장 송석우)는 지난 3월 출시한 양계사료 신제품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양계 사육농가인 조합원 및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권역별로 개최했다.

산란 및 육계명품골드 제품은 옥수수를 포함한 원료 가격 상승 및 FTA 체결에 따른 향후 양계산물 생산감소 예상 등 갈수록 어려운 농가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 농가 생산비용 절감과 기대수익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으며, 이번 신제품 순회설명회를 통해 농협 양계사료의 품질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농협사료 노중환 마케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출시된 산란·육계명품골드는 오랜기간 연구해 개발되었고, 실제 시범농가 사양시험을 통해 검증된 제품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특징은 농가의 핵심 불만사항을 검토해 보완했는데, 우선적으로 사료의 원료구성을 효율적으로 적용해 닭의 영양소 이용률을 극대화시켰으며, 항병력 강화 및 면역력 증강으로 건강한 계군 유지와 유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해 농장의 친환경 사양관리를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 설계를 주도한 임재상 박사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환경에서 농장의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핵심사양관리 방법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행사에 참여한 농가는 물론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축산신문사

한·미 FTA 타결, 축산분야 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 개최

축산신문사는 지난 4월 16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 본부 2층 대강당에서 '한·미 FTA 타결, 축산 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대거 참석해 한·미 FTA 타결이 축산인들의 최대 관심거리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양계부문 대표 연사로 나선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지회장은 "양계농가들은 한·미 FTA 타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한·미 FTA는 지난 겨울 내내 시로 만신창이가



된 양계농가들을 다시 한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FTA 타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고민"이라며 "양계업계는 무엇하나다 요구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 지회장은 "정부는 FTA를 계기로 양계산업 정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해야 하며 양계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07 한국국제유통산업전' 개막 세계 유통인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유통인의 축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유통물류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2007 한국국제유통산업전'이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태평양홀 전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유통업체에서 취급되고 있는 식품, 생활용품과, 소매업 운영에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이 출품되며, 유통산업 관련 최신 정보와 기술, 아이디어가 대거 선보인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유통산업 관련 최신 동향을 한 눈에 모두 볼 수 있고, 아울러 유통업체 바이어와 신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국국제유통산업전은 크게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유통산업을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유사 업종들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형식이다. 이런 형식은 참가업체와 바이어에게 동종 업계 정보 교류의 편리성을 주며, 관람하는 참관객에게는 효율적인 관람 동선을 제공해 한 층 높아진 관람문화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2007 한국국제유통산업전'에서 유통에 관한 알짜 정보를 얻길 원하는 관람객들은 파빌리온을 참고하여 미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장료가 3,000원이지만 인터넷에서 사전 등록할 경우, 별도의 입장권 구입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전시장 입구에서 번거로운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 문의 : (02)6000-1073, 8491
- 홈페이지 : www.retailfair.co.kr